

### 솔로우 성장모형 → 수능특강 직접연계 지문(2025 LEET 지문)

올해 리트시험 언어이해에서 출제되었고 수능특강에 없는표현인 "정태상태" 라는 단어도 경험해보고 해설서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분들위해서 올립니다.

운 좋으면 22수능 헤겔지문처럼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헤겔지문은 헤겔관련 리트지문을 접해봤다면 놀라울정도로 많이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능특강 연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지문들은 그동안 꽤 있었습니다.)

**수능특강과 동일한 소재와 심지어 그래프까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수특지문에서는 균제상태 의 개념이 등장하니 , 일단 수특내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해설했습니다.

균제상태=정상상태 , 배경지식도 생략했습니다.)

23수능 기초대사랑처럼 문장단위 납득이 쉽지 않지만, 정보의 역할과 비례관계, 핵심논지파악 하 면해볼만 한 지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한 사회의 소비나 인프라 수준은 생산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장기적인 변동으로 정의되는 경제성장은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다. 솔로우 성장모형은 저축과 인구의 변동, 기술의 진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동태적으로 분석하는 대표적인 성장모형이다. 인구와 기술 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y$ )은 자본량( $k$ )의 증가 함수이다. 단, 자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생산이 늘어나는 정도는 자본 수준이 높아질 수록 작아진다고 가정한다. 자본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생산은 소비( $c$ )나 자본재 구입을 위한 투자( $i$ )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 = 소비량 + 투자량'의 관계가 언제나 성립한다.

#### 1문단입니다. (범주 잡아야죠~)

'솔로우 성장모형' 이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정보가 추후 제시될 개념들과 어떻게 적용될지, 즉 "정보의 역할" 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저축,인구,기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범주화 시키고, 세부정보는 추후 서치하면 된다는 기분으로 읽으면됩니다.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에게 경제성장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줄에 , 따라서 라는 강조/결과 표시어가 보이고 관계식이 등장합니다.

**생산량=소비량+투자량**

언제나 성립한다고 하니 **예외없는 표현**이기에 당연히 중요한 문장으로 인식해야합니다.

(★★모든,항상,언제나... 처럼 예외없는 표현의 문장은 백퍼 선지에 나옵니다. 그동안의 기출 다시 보세요. 상당히 빠르고 쉽게 답이 보이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참,두번째줄의 경제성장의 정의 놓치지 않으셨죠?

(경제성장: 생산능력의 장기적인 변동)

★첫단락 범주화 :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솔로 성장모형을 알아야한다. 이모형부터 설명하겠구나. 그리고 이 모형은 왜 중요할까?

생산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부분, 즉 저축이 투자의 재원이 되므로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 일치한다. 저축률( $s$ )은 저축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이다. 감가상각은 자본 사용 정도에 비례하여 자본재의 일부가 마모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률은 자본량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상수인 감가상각률( $\delta$ )의 곱으로 결정된다. 생산량을 비롯하여 저축량, 감가상각량, 투자량 등은 총량을 고정된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개념이다.

**2문단입니다.**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위의 관계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항상) 일치한다. 라는 표현은 예외없는 표현이니 중요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투자=저축) 이후부터는 저축과 감가상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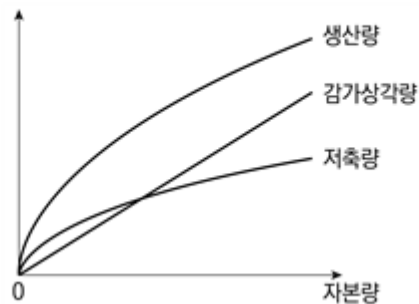
필요시 서치하자.... 이정도 마인드면 충분합니다.

(23수능 기초대사량도 어차피 문장단위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문제풀이에는 굳이 모두 납득할 필요도 없는 지문이었습디다.)

솔로우 성장모형에 따르면 자본량의 변동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Delta k = i - dk$$

여기서  $\Delta$ 는 경제 변수가 전기 대비 변동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기호이다. 이 식은 자본량의 변동 방향을 결정하는 두 요인을 설명하는데, 신규 투자는 자본량을 늘리는 반면 감가상각은 자본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앞선 논의를 종합하면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다음 <그림>과 같이 궁극적으로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 3문단입니다.

문단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솔로우 성장모형과 자본량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정보의 역할을 잡아야 합니다. 왜 자본량의 변동을 설명할까?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생산량, 저축량, 감가상각량은 모두 "자본량"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그래프의 X좌표가 자본량이니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가 수특 138페이지와 동일합니다.)

솔로우 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정태상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자본량의 변화가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자본량의 변동이 없으므로 생산량의 변동도 없고 저축과 소비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태상태에 있지 않은 경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태상태로 이동하는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만약 투자량이 감가상각량을 상회하고 있다면 <식>에 의해 자본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의 일정 비율인 투자도 증가한다. 또한 자본량의 일정 비율인 감가상각량도 늘어난다. 다만, 감가상각량의 증가 속도는 자본량의 변화 속도와 언제나 같은 반면 투자량의 증가 속도는 차츰 감소하는데, 이는 자본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결국 어느 시점에서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같아지면서 경제가 정태상태에 도달

하게 되며, 이후에 다른 외생적인 변화가 없다면 경제는 이 정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경제가 도달하는 정태상태 자본량은 각 경제의 기초여건인 저축률 및 감가상각률 수준과 생산함수에 의해 결정된다.

#### 4문단입니다.

이제는 정태상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 범주가 바뀌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태상태는 투자량(저축)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본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라고 하네요. **(자본량에 변화가 없다=자본량 고정...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된 개념 놓치면,,, 큰일납니다. 선지에 개념정의는 필연적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항대립구조를 안다면 좀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항대립"★ 이란 쉽게 설명하면 이런겁니다.

A=희고 거칠다.

B=??

(설명없어도 A를 부정하면됩니다. 즉, 희지 않고 거칠지 않다! 별거 없죠~)

사실 거의 모든글에 이항대립구조가 보이니만큼 이정도의 글의 구조는 알아야 합니다. 공통점이니 차이점이니...이렇게 접근하다보면 2개가 아닌 3개, 4개를 비교하는 정보가 나오면...읽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태상태 = 자본량의 변화없는 상태

\*~정태상태 = 자본량의 변화가 있는 상태 (~은 NOT 으로 읽으면됩니다.)

그리고 정태상태에 있지 않는 경제는 시간이 지나면 정태상태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사례가 나오는데 ★ "비례관계" 가 보입니다.

(글의 구조중에 비례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글쭙 치는 분들은 느끼시죠?** 비례관계가 보이면 선택지에 반드시 나옵니다.)

필요하면 와서 서치할 생각으로 읽어나가면됩니다. (자본량 증가 - 생산량 증가-투자 증가-감가상각량 증가)

마지막 문장은 16번문제 1번선지 그대로 입니다.

[A]

솔로우 성장모형에서는 소비가 최대가 되는 정태상태 자본량 수준을 최선의 자본량이라는 의미에서 황금률 자본량이라고 부른다. 생산함수와 감기상각률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축률 변동을 통해 경제가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거나 또는 황금률에 보다 가까운 수준의 자본량을 보유하도록 경제상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태상태에 있는 어느 경제의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축률을 상승시키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하자.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는 저축률 상승으로 인해 소비가 즉각 줄어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와 자본량 증대가 생산 수준을 점차 더 높게 된다. 따라서 생산의 일정 비율인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책 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새로운 정태상태에서 미래 세대는 정책 변경이 없었던 경우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누릴 수 있으므로 효용이 증가한다. 반면 현재 세대, 특히 기대 잔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미래 시점에서의 소비 증가 혜택을 얻을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의 소비 감소로 인한 효용 감소는 분명하므로 청년층에 비해 이와 같은 정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 5문단입니다.

결국 솔로성장모형, 자본량, 정태상태.... 많은 변수들과 관계식을 지금까지 설명한 이유를 분명 제시 할거라는 믿음을가지고 읽어야합니다. 사설지문이 아니니까요~~

(지문의 구조는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23수능 기초대사량과 유사하며, 수능처럼 전형적인 경제지문의 비례관계가 아닌, 관계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도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 정책입안자, 경제학자에게 왜 솔로 성장모형이 중요할까?

솔로 성장모형에서 소비가 최대가되는 즉 정태상태 자본량(★최선의자본량, 예외없는 중요한표현이니 잡아니아합니다. 아나나다를까 17번 5번선지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의 의미인 **황금률 자본량**이라는 개념을 설명합니다.(**최선의자본량... 당연히 예외없는 표현으로 잡아야합니다. 17번문제의 5번선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정보의 역할은 뒤에 읽어보면 정태상태에 있는 경제의 자본량이 황금률 자본량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이를 통해서 **정책변경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부분도 평가원기출이러서.... 기억안나신다면 기출다시 하셔야 할것같습니다TT)

### 핵심논지.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서는 저축률상승으로 소비가 즉각 줄어드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도 점차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정책변경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변화한다.

즉, 이 글은 정태상태의 자본량이 미치는 효용에 대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과 현재세대인 고령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고령층은 현재의 소비감소로 정책에 반대할 것이고, 청년층은 더 높은수준의 소비를 누릴 수 있어 효용이 증가하니 정책에 찬성할 것입니다

<문풀>

1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함수는 정태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② 투자와 감가상각이 다르다면 자본량은 변동한다.
- ③ 자본량이 늘어나면 생산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 ④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경우는 결코 발생할 수 없다.
- ⑤ 자본이 한 단계 증가할 때 생산 증가의 폭은 자본 수준이 높을 수록 작아진다.

너무 쉽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문단의 마지막 문장 그대로입니다. 눈만뜨고 있으면됩니다.

2번,3번선지를 보시면 정의된 개념 그대로 비례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번: 3문단그대로입니다.

4번: ★투자와 저축은 언제나(항상) 일치! 기억나시죠? 역시 예외없는표현은 반드시 선지에 등장합니다.

17. 뒷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저축률을 비롯한 기초여건은 동일하지만 초기 생산량이 다른 두 국가 경제는 소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 ② 저축률을 변경시키는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는 세대 간 기대 잔여 수명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다.
- ③ <그림>에 의하면 자본 마모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 저축률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자본량은 작아진다.
- ④ <그림>에 의하면 저축률의 상승은 투자량과 감가상각률이 일치하는 자본량을 확대시킨다.
- ⑤ 황금률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의 생산량은 다른 조건의 변화가 없다면 변동하지 않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실전적 풀이: 생산량=소비량+투자량(=저축) 이라고 했고, 1번선지는 저축률 동일(고정), 소비 고정(소비격차가 좁혀지지않는다), 생산량은 다르니...

"소비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식 비례관계 성립불가)

물론 황금률자본량 바탕의 정태상태개념으로 판단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비가 최대가 되는게 황금률이니 소비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5번선지는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예외가 없는 표현" 으로 황금률 자본량을 인식했다면 (최선의 자본량), 서술부의 "변동하지 않는다"...를 통해서 '적절하다'라고 하고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

(세부정보의 내용파악으로만 선지를 판단하려하면 수능에서 표현을 바꿔놓은 선지들중에서 빠르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다른문제들과 동일하게 시간을 써야하기에 시간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상위범주-하위범주 오류 선지나 선후관계 오류선지, 예외없는표현의 문장의 개념들...은 상당히 빠르게 판단해내야, 시간이 필요한 선지에 할당 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추후 기출문제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의 X국 경제 정책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재 X국에서는 투자량과 감가상각량이 일치하며,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이에 주목한 정부는 황금률 자본량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단, 다른 조건의 변동은 없다.)

- ① 정책 시행 이후 현재 세대 중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의 효용 수준은 높아진다.
- ② 정책 시행 이후 새로운 정태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는 점차 증가한다.
- ③ 미래 세대의 효용 수준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보다 높아진다.
- ④ 감가상각량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 ⑤ 자본량은 정책 시행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렴한다.

이문제는 정답률이 20% 대 입니다.

저는 보기부터 읽지 않습니다. 일단 지문을 바탕으로 선지를 훑어보며 선지를 추려냅니다.

(수능 기출문제를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지문독해가 잘되었다면 3점짜리 보기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판단할 선지가 한두개로 추려지기 때문입니다.)

#문학: 문학은 비문학보다 더 선지를 쉽고 빠르게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문제에 할당할 수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정확도 속도 모두 잡기!)

곧 최근 수능과 6평등에 적용한 문학 해설을 올려보겠습니다.(칼럼 형식이든 해설식 이든...)  
설마 실전에서 225개 선지모두를 판단하려고 하는분은 없겠죠....^^

**실전적풀이:** 선지를 보다가 2번선에서 "정태상태" 라는 이글의 핵심키워드가 보였고, **생산량=소비량+투자량** 이라는 관계식이 머릿속에 있었기에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지문으로 가보니,

정책이 시행된 시점에는 소비가 즉각 줄어드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도 점차 증가한다를 통해서, 틀린선지로 보고 보기를 통해서 다시한번 체크했습니다.

**<보기>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지문: 자본량이 황금률 하회, 보기: 자본량이 황금률 상회)**

**결국 소비는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황금률수준 하회시 소비가 줄었다가 점차 증가한다고 했으니, 센스만 있어도 사실 쉽게 2번선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